

『濟衆立效方』에 관한 의사학적 고찰

- 交效散을 중심으로 -

¹이덕호, ²김홍균, ¹안상우*

¹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통의학사연구소

Historical study of 濟衆入效方 -focusing on 交效散

¹Lee Duk Ho, ²Kim Hong-kyoon, ¹Ahn Sang Woo

1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s, 2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medical history

“濟衆立效方” is the oldest Koryo dynasty medical document known to date. Despite its historical importance, due to the absence of its original copy, its true characters could not be understood. Through comparison of the many documents that cited 濟衆立效方, it could be found that 濟衆立效方 can be classified into two parts based on its contents and form. In Chinese medical texts, neither the name 交效散 nor any similar prescription is mentioned. 濟衆立效方 was the first in suggesting the usage of pine needles and salt for fomentation and not for internal use. Thus 交效散 can be thought of as the oldest indigenous prescription preserved in Korean history. 濟衆立效方 conveys records of the combination of the ancient origin pine needle fomentation and the creative addition of salt.

keywor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Koryo dynasty, 濟衆立效方, 交效散

I. 서론

『濟衆立效方』은 현재까지 이름이 전해지는 고려 시대의 의서 중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그러나 원서가 소실되었으므로, 그 의사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면목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제중입효방』의 역사적 실체성은 최근까지 단지 두 가지 증거에 의하여 밀받침 되어 왔다. 첫 번째 증거는 고려의 문신이었던 金永錫의 墓誌銘에 書名이 등장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鄉藥集成方』에 『제중입효방』에서 인용한 한 가지 처방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토록 남아 있는 자료가 희박한 탓인지 『제중입효방』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일찍이 金斗鐘은 그의 저서 『한국의학사』에서 『제중입효방』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外臺秘要에 인용된 千金方의 松葉를 채택하면서 치료의 방법에 있어서는 독자적 經驗法方을 발휘한 것”¹⁾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김두종의 평가 이후로는 특별히 눈에 띄는 관련 연구를 찾아볼 수 없다가 최근 들어 『제중입효방』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1)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한국한의학연구원 042-868-9443

E-mail : answer@kiom.re.kr

1) 김두중, 『한국의학사』, 137쪽.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申榮日의 연구에 의하여 『鄉藥救急方』에도 『제중입효방』의 처방이 기재되어 있음²⁾이 알려졌다. 둘째, 崔桓壽 등의 연구에 의하여 『제중입효방』의 처방이, 『醫方類聚』에서 『備預百要方』을 인용한 부분에 수록되어 있음³⁾이 알려졌다. 셋째, 安相佑의 연구에 의하여 김영석의 증손인 金弁이 『비예백요방』에 자신의 의약 경험을 수록했다는 사실⁴⁾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김영석으로부터 후대로 이어지는 고려 의학의 계통성에 대한 실마리가 드러나게 되었다. 넷째, 金洪均의 연구에 의하여 『제중입효방』의 처방이 『醫林撮要』에도 기재되어 있다⁵⁾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일련의 새로운 발견은, 비록 원서는 사라졌을지라도 그 흔적은 어딘가에 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제중입효방』의 영향이 후대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편 『제중입효방』의 잔존 처방이 단지 松葉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의서의 내용을 채택한 것으로 본 김두종의 주장은, 그 당위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⁶⁾

이에 논자는 『제중입효방』의 저술 배경, 『제중입효방』이 인용된 문헌, 『제중입효방』의 내용, 『제중입효방』 수록 처방이 후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탐색과 연구를 통하여, 『제중입효방』의 특징과 그 의학적 가치 및 의의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및 고찰

1. 『濟衆立效方』의 저술 배경

- 2) 신영일,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 117쪽 주석 참조.
- 3) 한국한의학연구원, 『역대 한의학 문헌의 고증 I』, 84쪽.
- 4) 안상우, '고려 의서 비예백요방의 고증', 『서지학연구』, 330~331쪽.
- 5) 안상우, 「고의서산책(134) 제중입효방」 참조. / 맹웅재 등, 『한의학통사』, 219쪽 참조.
- 6) 김두종의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김홍균에 의해 먼저 언급된 바 있다. (김홍균, 「99 한국의학사 강의록」, 35쪽 참조.)

1) 저자에 대한 고찰

『제중입효방』의 저자인 김영석은 1079년부터 1166년까지 생존했던 인물이다.⁷⁾ 『高麗史』 「列傳」 金仁存 條에 의하면, 신라 왕실의 친척인 角干 金周元이 그의 조상이며, 고려 시대 최고의 관직인 門下侍中을 지냈던 김인존이 그의 부친이다. 이러한 권문세가의 가풍을 이어 김영석 역시 여러 요직을 역임하였고 퇴임 직전에는 관직이 中書侍郎 平章事와 判兵部事 등에 이르게 되었다.

김영석의 경력 중에서 『제중입효방』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은, 그가 50대 후반에 들어섰던 1137년에 秘書少監과 寶文閣待制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이다. 비서소감과 보문각대제는 각각 秘書省과 보문각의 관리를 지칭한다. 당시 비서성은 국내외 경적류의 수집, 관리, 간행을 주관했던 기관이었고, 보문각은 서적의 보관처이자 강학소의 성격을 띤 왕실문고였다.⁸⁾ 특히 비서성은 문필이 뛰어난 자만이 등용되는 기관이었다.⁹⁾ 이러한 정황은 국내외의 많은 의서를 직접 접할 수 있었던 김영석의 배경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김영석의 집안은 신라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 온 귀족 가문이었으므로, 비교적 잘 보존된 家藏 의서들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영석의 경력 중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사항으로는 그의 외교가적 편력을 들 수 있다. 김영석의 부친인 김인존은 요나라 사신을 접대하거나 요나라에 직접 사신으로 왕래했던 인물인데, 김영석 역시 그 뒤를 이어 사신의 신분으로 중국을 왕래하였다.¹⁰⁾ 이와 같은 신분적, 환경적 배경은 그가 국내외의 많은 물산, 그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약재를 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 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http://people.aks.ac.kr>) 등에는 김영석의 몰년이 1167년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그의 묘지명에 '丙戌四月八日薨'이라 되어 있으므로 1166년을 몰년으로 보는 것이 옳다.
- 8) 임지혜, 「고려시대 왕실문고에 관한 고찰」 참조.
- 9) 배현숙, 「고려시대 비서성」 참조.
- 10) 『고려사』 '세가' 인종 2년 기사 참조.

김영석의 묘지명에 기록된 『제중입효방』 관련 기사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일찍이 송과 신라의 의학서적을 보면서 기이하고 중요한 것을 (뿔아 책을 만들어)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름하여 『제중입효방』이라고 하니 세상에 널리 전해졌다. 공은 별열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만물에 (두루 밝음) 못 사람보다 뛰어났으니, 진실로 박물군자이다.[嘗閱大宋·新羅醫書，□□奇要，便於人者，名之曰濟衆立効方，傳於世。公生長閩閩，而□□物類，出於稠人，眞博物君子也。]’ 11)

김영석은 명문세가의 후손이었고, 인정받는 지식인이었으며, 국내외의 다양한 서적과 물산을 접한 인물이었다. 김영석이야말로 신라와 송의 의서를 두루 참조하여 의서를 저술할 수 있는, 당대의 그 누구보다도 적합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2) 저술 동기에 대한 고찰

『濟衆立効方』이라는 책 제목으로 미루어 볼 때, 대중적으로 쓰일 수 있는 효과 빠른 처방을 수집·정리하고자 했던 김영석의 의도를 쉽게 파악해 볼 수 있다.¹²⁾ 그런데 김영석의 묘지명을 분석해 보면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의 저술 동기 또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의 묘지명에 의하면¹³⁾, 그는 지방관직을 네 번 역임했고 東路兵馬使를 세 번 맡았다¹⁴⁾고 한다. 이토록 여러 차례 객지에서의 직임이 무리가 되었는지, 최고의 지위에 오른 65세 때에는 風痺라는 병을 앓아, 이로 인하여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왕이 처음에는 그의 사임을 허락하지 않

았으나 김영석이 굳게 간청하기를 그치지 않자 비로소 물러날 것을 허락했다¹⁵⁾는 기록으로 보아, 그의 병세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묘지명에 78세로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 투병생활 한 것이 기록될 정도였으니, 그의 말년은 風痺와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어떠한 증상을 風痺라고 지칭했던 것일까. 현종 8년인 1017년에는 송에서 고려로 『太平聖惠方』이 유입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¹⁶⁾ 『태평성혜방』은 영향력이 큰 의서였으므로, 김영석 활동 시기에 이르러서는 『태평성혜방』에서 논한 병증 개념들이 고려에서도 통용되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태평성혜방』에는 ‘夫痺者，肌肉頑濃，或則疼痛’¹⁷⁾이라 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風痺는, 기육의 불편감과 통증을 주소증으로 하는 질환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영석은 통증 질환인 風痺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를 다스리는 처방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장인이었던 李公壽 역시 평소에 風疾을 앓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¹⁸⁾, 이러한 정황상 자신과 친족의 건강을 위하여 의학 지식을 정리해 둘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제중입효방』 처방은 그 주치증이 ‘偏風，手足不隨，疼痛’으로 되어 있다. 즉, 이 처방은 김영석의 앓았던 風痺를 다스리기에 매우 적합한 것이었다. 이 처방은 김영석의 애용방으로서, 그리고 그의 집안의 家藏方으로서 후대까지 보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증거가 바로 『비예백요방』이다. 김영석의 증손인 김변은 자신의 의학 경험을 담은 『비예백요방』에 증조부가 남긴 이 처방을 인용해 놓았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의방유취』에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되었던 것

11) 김용선, 『고려묘지명집성』, KRPIA 온라인 서비스에서 발췌.

12) 한편, ‘제중입효방’ 중 ‘입효방’이란 것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처방’을 뜻한다는 측면에서 ‘구급방’과 의미상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제중입효방』은 한국 의학사상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구급방서류의, 문헌상 최초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3) 김용선, 위의 자료. 이하의 모든 묘지명 관련 내용은 본 자료를 참고하였다.

14) ‘四補外任三爲東路兵馬使’

15) ‘以風痺乞退上初不許公堅乞不已上重違其意遂依允仍令致仕’

16) 김두중, 『한국의학사』, 118쪽.

17) 『태평성혜방』 제19권 治風痺諸方 조문 참조.

18) 김용선, 『고려묘지명집성』, 이공수의 묘지명 부분 참조.

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해 볼 때, 김영석은 자신의 질병에 실제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리고 동시에 누구나 효과 빠른 고금의 처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중입효방』을 저술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저작 시기에 대한 고찰

三木榮은 『제중입효방』의 저작 시기를 의종년간, 즉 1147년과 1170년 사이라고 제시했다.¹⁹⁾ 한편 최환수 등은 김영석이 修文殿學士를 맡기 시작한 1147년부터²⁰⁾ 그의 몰년인 1166년 사이를 『제중입효방』의 저작 시기로 추정했다.²¹⁾

김영석의 몰년이 1166년이므로 하한년도를 1170년으로 잡은 삼목영의 주장은 옳지 않다. 묘지명의 내용으로 볼 때 『제중입효방』은 김영석의 생존시에 저술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문전학사라는 관직과 『제중입효방』의 저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상한년도를 1147년으로 잡은 견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관직과 관련하여 살펴 본다면 오히려 김영석이 비서소감과 보문각대제를 맡았던 1137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직책을 맡았던 기간이 1년 남짓으로 길지 않았고 그 후에 무관으로서 지방 관직을 계속 맡았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1137년부터 바로 의서를 저술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국내외와 고금의 여러 자료를 참조하여 책을 저술하는 종류의 작업이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을 것이다. 김영석이 風痺로 인하여 관직에서 물러나 양양했던 13년간의 기간은, 시간적 여유 측면에서나 개인적 필요 측면에서나 의서를 집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 보인다. 즉, 『제중입효방』의 저작 시기는 김영석이 65세가 되던 해인 1154년부터 몰년인 1166년 사이였을 가능성이 비

교적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2. 『濟衆立效方』이 인용된 문헌 탐색

비교적 최근까지도 『제중입효방』이 인용된 문헌은 『향약집성방』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²²⁾ 그러다가 1994년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와 같은 논문에서, 『향약집성방』에서 인용한 『제중입효방』의 처방이 『향약구급방』에도 기재되어 있음이 발표되었다.²³⁾ 1996년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간행한 『역대 한의학 문헌의 고증』과 같은 문헌에서, 『의방유취』에도 『제중입효방』 처방이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002년 「고의서산책(134) 제중입효방」에서는 『제중입효방』의 처방이 『의림촬요』에도 실려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발표는 『제중입효방』의 내용이 또 다른 새로운 문헌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현재까지 『제중입효방』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매우 적은 실정이므로, 새로운 인용 문헌을 탐색하여 발견해내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중입효방』이 인용된 새로운 문헌을 탐색하는 작업에는 결정적인 난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각 문헌에 인용된 『제중입효방』의 내용이 오직 한 가지 처방, 즉 交效散에 관한 것뿐이라는 점이다. 교효산 부분 이외에는 『제중입효방』의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설령 『제중입효방』이 또 다른 문헌에 인용되었다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제중입효방』이 인용된 새로운 문헌을 탐색할 때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문헌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다. 첫째, 기존의 교효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방이 실린 문헌을 조사하였다. 둘

19) 삼목영, 『조선의서지』, 3쪽.

20) 김영석의 묘지명에 의하면, 그가 수문전학사를 맡은 것은 皇統 8년으로서, 1147년이 아닌 1148년이 맞다.

21)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역대 한의학 문헌의 고증 1』, 75쪽.

22) 김신근, 『한국의약사』, 51쪽.

23) 비록 이 논문에서는 『제중입효방』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부분이 없었지만, 주석 부분에 『향약구급방』의 내용과 『향약집성방』에서 인용한 『비예백요방』의 내용을 서로 비교한 부분이 있었다.

째, ‘濟衆立效方’, ‘濟衆立效’, ‘濟衆方’ 등과 같은 출전명이 기재되어 있는 문헌을 조사하였다. ‘제중입효’는 『향약집성방』에 나온 출전명이며, ‘제중방’은 『의림촬요』에 나온 출전명이다.

1) 새로 발견된 交效散 인용 문헌, 『救急單方』

앞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문헌 외에도 『구급단방』에 교효산 조문이 인용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급단방』은 조선 후기의 의서로 추정되는 1권 1책(72장)의 필사본으로서,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편찬한 이는 공주 지역의 和順堂 주인으로만 알려져 있고, 내용은 각종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구급방 위주로 정리되어 있다.²⁴⁾

『구급단방』에 인용된 교효산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偏風手足不遂疼痛松葉五升塩二
升蒸熱袋盛熨冷則改蒸以差爲度名交效散²⁵⁾

인용된 내용과 형식면에서 기본적으로 『의림촬요』에 기재된 교효산 부분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의 ‘문헌간 내용 비교 고찰’ 부분에서 정리했다.

2) 출전명 ‘濟衆方’이 기재된 문헌 고찰

‘제중입효방’, ‘제중입효’, ‘제중방’ 등과 같은 출전명이 기재된 문헌을 조사한 결과, ‘제중입효방’이라는 출전명으로 인용한 의서는 발견할 수 없었고, ‘제중입효’라는 출전명은 『향약집성방』 외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제중방’이라는 출전명은 『의림촬요』를 비롯하여 『醫方類聚』, 『李石澗經驗方』, 『醫方合編』, 『仁濟志』와 같은 한국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제중방’이라는 출전명은 『증류본초』, 『고금의통대전』, 『의학강목』, 『뇌공포제약성해』, 『본초강목』, 『신농본초경소』, 『잡병광요』, 『삼소론』 등의 중국 문헌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 중국 의서에 기재된 ‘제중방’은 대부분 『簡要濟衆方』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요제중방』은 송대 1051년에 周應이 편찬한 의서이며,²⁶⁾ 원서는 망실되었으나 그 일문이 『증류본초』 등의 중국 문헌과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등의 한국 문헌에 남아 있다.

중국 문헌이든 한국 문헌이든, 『간요제중방』을 인용할 때에는 대부분 ‘간요제중방’ 또는 ‘간요제중’이라는 출전명을 사용하며, 드물게 ‘제중방’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제중방’이라는 출전명이 거의 『간요제중방』을 지칭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제중방’이라는 출전명이 모두 『간요제중방』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 『의림촬요』에서 『제중입효방』을 ‘제중방’이라고 지칭하여 인용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특히,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와 같은 문헌에는 『제중입효방』과 『간요제중방』이 동시에 인용되었으므로, 한국 역대 의서에 등장하는 ‘제중방’에 관해서는 그것이 어떤 문헌을 지칭하는지에 대해 더욱 신중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의방유취』의 경우, 傷寒門 중 『大全本草』 인용부에 ‘제중방’이라는 출전명이 보인다. 『대전본초』는 『증류본초』 계열의 문헌인데, 『의방유취』 인용 부분은 초기 『증류본초』에도 그대로 실려 있는 내용이다. 『증류본초』의 저작 시기²⁷⁾가 『제중입효방』보다 앞서므로, 『의방유취』의 ‘제중방’은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한편 『이석간경험방』, 『의방합편』, 『인제지』에 기재된 출전명 ‘제중방’ 부분에 대하여 중국 문헌

24)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 『구급단방』 해제정보 참조.

25)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에 수록된 『구급단방』의 원본 이미지를 보고 옮겨 적었으며, 줄바꿈 및 구두점은 원본과 동일하게 하였다.

26) 중국의적대사전편찬위원회, 『중국의적대사전』, 1793쪽.

27) 『증류본초』는 당신미가 약 1082년경에 저술했으며, 그 후 수 세기 동안 거듭 증보되었다.

과 대조하며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두 『간요제중방』을 인용한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중입효방』을 ‘제중방’이라는 출전명으로 기재한 의서는 현재까지 『의림촬요』가 유일한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문헌 자료가 발굴되기를 기대해 본다.

3. 『濟衆立效方』의 내용

『제중입효방』이 인용된 부분은 각 문헌 사이에 내용과 형식면에서 다소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면 『제중입효방』의 전본 계통과 전변 과정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고에서는 『제중입효방』의 유일한 처방인 교효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 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제중입효방』과 교효산의 의학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문헌간 내용 비교 고찰

각 문헌에서 『제중입효방』 처방이 인용된 부분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향약구급방』	理中風半邊不遂 用生松葉擣六斗蓋二升相和盛布囊中 蒸之承熱熨患處冷更易熱不至傷肌日三四熨之良
『향약집성방』	濟衆立效治偏風手足不隨疼痛松葉五斗許 鹽二升 右蒸熱盛袋中熨之冷則更蒸以差爲度
『의방유취』	又中風半身不遂手足不仁方 松葉生擣鹽相和盛袋蒸之熱熨不至傷肌冷易日五六度
『의림촬요』	交效散治偏風手足不遂疼痛 松葉五升 鹽二升 右蒸熱袋盛熨冷則改蒸以差爲度濟衆方□
『구급단방』	偏風手足不遂疼痛松葉五升鹽二升 蒸熱袋盛熨冷則改蒸以差爲度名交效散

이들 각 문헌간 내용에 대하여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향약구급방』 (下卷, 中風門)

理中風半邊不遂 用生松葉擣六斗蓋二升相和盛布囊

中蒸之承熱熨患處冷更易熱不至傷肌日三四熨之良²⁸⁾

『향약구급방』은 다른 네 문헌보다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다. 시대적으로 『제중입효방』보다 약 1세기 후에 성서된 것으로 추정된다. 『향약구급방』은 『비에백요방』을 다수 인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²⁹⁾ 위의 조문 역시 『의방유취』에 인용된 『비에백요방』의 내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② 『향약집성방』 (卷第三, 風門 中風半身不遂條)

濟衆立效治偏風手足不隨疼痛

松葉五斗許 鹽二升○右蒸熱盛袋中熨

之冷則更蒸以差爲度

『향약구급방』에는 출처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향약집성방』 조문에는 앞머리의 ‘제중입효’ 부분이 명확한 인용 출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조문은 『제중입효방』의 실제 전본을 참고하였거나, 또는 『제중입효방』의 출처를 명확히 명시했던 이차자료를 인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과 형식면에서도 『향약구급방』과는 큰 차이점이 나타난다. 우선 『향약구급방』에 제시된 주치증 중 ‘中風半邊不遂’ 부분이 ‘偏風手足不隨’ 와 같

28) 이하의 원문은 모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에 수록된 원본 영인 이미지를 보고 직접 옮겨 적은 것이다. 줄바꿈은 원본과 동일하게 하였다. 단, 『의방유취』만은 원본 영인 이미지가 없으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산화된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9) 안상우, 『고려 의서 비에백요방의 고증』, 『서지학연구』, 341~343쪽 참조.

이 표현되었고, ‘疼痛’ 부분은 생략되었다. 그리고 松葉의 수치법인 ‘搗’ 부분이 생략되었으며, 松葉의 용량은 6斗에서 5斗로 변경되었다. 『향약구급방』에서는 松葉을 먼저 ‘盛布囊中’ 한 뒤 ‘蒸之’ 하였으나, 『향약집성방』에서는 먼저 ‘蒸熟’ 한 뒤 ‘盛俵’ 하였다. 또한 『향약구급방』에서는 ‘相和’, ‘不至傷肌’ 등 상세한 안내사항이 있으나 『향약집성방』에서는 생략되어 있으며, ‘日三四熨之’ 부분은 ‘以差爲度’로 변경되었다.

③ 『의방유취』 (卷之二十四, 諸風門 備預百要方 諸風 條)

又中風, 半身不遂, 手足不仁方:

松葉生搗, 鹽相和, 盛袋蒸之, 熱熨不至傷肌, 冷易, 日五六度.

『향약구급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선 ‘半邊不遂’ 부분이 ‘半身不隨’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松葉과 鹽의 용량이 생략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인데, 다른 네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이다. 그리고 이 요법의 반복 횟수가 ‘日三四熨之’에서 ‘日五六度’로 증가하였다.

『의방유취』가 『향약집성방』과 비슷한 시기에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문은 오히려 『향약구급방』에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본 조문이 『비예백요방』을 인용한 부분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제중입효방』 조문의 인용 흐름이, 『비예백요방』에서 『향약구급방』 및 『의방유취』로 이어지는 계통과, 『제중입효방』에서 『향약집성방』으로 이어지는 계통으로 이분되고 있는 현상은, 『제중입효방』의 전본 계통이 최소 두 가지 이상 존재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향약구급방』에는 본 조문을 『제중입효방』에서 인용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는 것에 비해, 『의방유취』에는 『비예백요방』을 인용했음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따라서 『비예백요방』에서 『향약구급방』으로, 다시 『향약구급방』에서 『의방유취』로 이

어지는 인용의 단일 계통선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비예백요방』이 바로 김영석의 증손인 김변의 저작물이라는 점이다. 김영석과 김변과의 시대차가 그리 크지 않으며, 안정적인 신분 덕에 개인 장서의 보존 상태도 비교적 양호했을 것이므로, 『제중입효방』의 원본을 김변이 직접 보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김변은 『제중입효방』의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 내용을 『비예백요방』에도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변이 『비예백요방』에 『제중입효방』의 처방 단 하나만 인용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의방유취』와 같은 문헌에는 『비예백요방』이 다량 인용되었는데, 그 중에는 본래 『제중입효방』에 수록되어 있다가 『비예백요방』으로 옮겨진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④ 『의림촬요』 (卷之一, 中風門)

交效散治偏風手足不遂疼痛 松葉^{五升}鹽^{二升}
右蒸熟袋盛熨冷則改蒸以差爲度^{濟衆方} □

『의림촬요』의 인용 부분은 형식면에서 『의방유취』 쪽보다는 『향약집성방』 쪽에 훨씬 더 가깝다. 『향약집성방』과의 가장 큰 차이라면, 松葉의 용량이 5斗에서 5升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점과, 交效散이라는 처방명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중입효’라는 출전명이 사라지고, 대신 말미에 ‘제중방’이라는 간략해진 출전명이 붙게 되었다.

용량이 감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간편하게 처방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주 사용되는 일이 없었다면 본래 이름도 없던 처방에 굳이 명칭까지 붙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즉, 『의림촬요』에서의 변화는, 이 처방이 점차 사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변화되었다는 점과, 실제로 활용 빈도가 높았던 처방이었다는 점을 시사해 준

다고 할 수 있다.

⑤ 『구급단방』(中風門)

偏風手足不遂疼痛松葉五升塩二

升蒸熱袋盛熨冷則改蒸以差爲度名交效散

『구급단방』의 교효산 조는 『의림촬요』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구급단방』이 필사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구급단방』의 저자가 『의림촬요』나 『의림촬요』의 이전본을 직접 인용했다고박에는 생각할 수 없다.

『구급단방』은 조선 후기의 문헌이다. 이때는 이미 『제중입효방』이나 『비예백요방』은 물론이거니와 『향약집성방』이나 『의방유취』조차도 구해 보기 어려운 시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림촬요』는 17세기 이후로 한국 고유 의서의 맥을 이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구급단방』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논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교효산이 각 문헌에 인용되어 전해진 개괄적 계통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³⁰⁾

2) 交效散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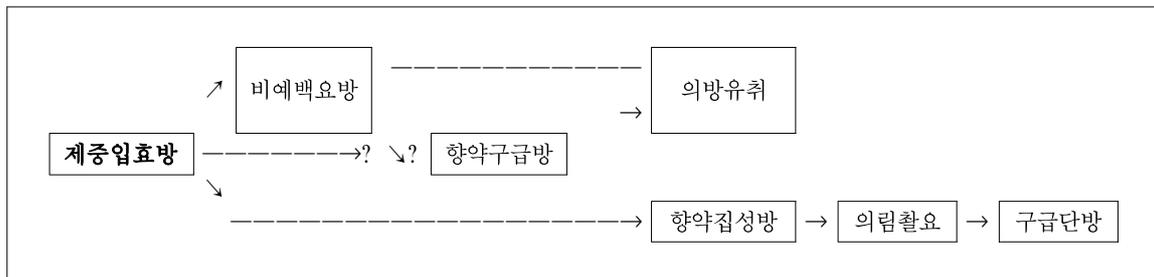
교효산은 松葉과 鹽 두 가지의 약물로 구성된

간명한 처방이다. 서론에서 인용했던 바와 같이, 일찍이 김두종은 교효산의 松葉을 중국 문헌인 『천금방』 처방에서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효산의 구성 약물이 단 두 가지뿐이라는 점, 그리고 약물 자체가 매우 평범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松葉과 鹽으로 구성된 처방이 중국 문헌에서도 쉽게 눈에 띄일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김두종이 제시한 이 『천금방』의 처방은 ‘靑松葉의 즙과 淸酒를 혼합하여 내복하는 方文’³¹⁾이었다. 그러나 이 方文은 교효산과 처방 구성 자체가 다를 뿐더러, 사용법도 외용이 아닌 내복용의 처방이었다. 이러한 처방으로부터 松葉을 鹽과 배합하여 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발상을 채택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천금요방』과 『천금익방』을 조사한 결과, 松葉과 鹽을 배합하여 사용하는 처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처방은 잇몸이 붓는 증상[齒根腫]을 다스리기 위하여, 松葉 1握과 鹽 1勺을 넣고 끓인 술을 입 안에 머금고 있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처방은 앞서 김두종이 제시한 처방에 비하여, 松葉과 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효산과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처방 역시 내복용이며, 주치증이 교효산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효산처럼 松葉과 鹽을 배합하여 찜질에 활용하는 처방은 중국 의서에서는 찾을 수 없었으며, ‘교효산’이라는 명칭 또



한 중국 의서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³²⁾ 현재

30) 이 표는 교효산의 계통성에 대한 것이며, 교효산을 수록한 의서 전체의 계통성에 대한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단 하나의 처방만으로 의서 전체의 계통성을 논할 수는 없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 의서의 계통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인용한 안상우의 논문 「고려 의서 비예백요방의 고증」을 참고할 것.

31) 김두종, 『한국의학사』, 137쪽.

32) 중국 문헌에서 교효산의 처방명과 처방 내용을 검색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로는, 사고전서 DB, 중화의학전에 수록된 600여 종 이상의 중국 의서 DB, 6만여 처방이 수록된 『방제대사전』 등이 있었다.

로서는, 교효산은 오로지 한국 의서에서만 발견된다.

松葉과 鹽을 내복용이 아닌 찜질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은 『제중입효방』이 최초였다. 교효산의 처방 내용은 12세기 중반 『제중입효방』에 처음 수록된 이후로 조선 후기의 『구급단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서 속에 면면히 전해져 내려왔다. 설령 교효산과 비슷한 처방이 중국의 어떤 문헌에서 새롭게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교효산이 지난 한국 의학사상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교효산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존되어 내려온 한국 고유의 처방들 중 하나인 것이다.

4. 『濟衆立效方』이 후대에 미친 영향

『제중입효방』은 내용 중 극히 일부분만이 전해지고 있으므로, 이 문헌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전면적으로 살펴 보기란 불가능하고, 다만 현재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처방인 교효산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 볼 수밖에 없다.

단 하나의 처방이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만큼 효과가 좋아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교효산이 대중들에게 애용되었다는 증거를 찾는 과정 중, 논자는 『承政院日記』 속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承政院日記』를 통한 고찰

『朝鮮王朝實錄』의 영조 13년 2월 17일 기록에는 ‘성상이 臂痛을 앓아 皇壇의 親祭를 정지할 것을 잇달아 청하니 윤허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영조가 만성적인 臂痛으로 고생했음은, 그 후로도 약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침치료를 받은 기록을 보아 짐작해 볼 수 있다. 고질적인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 침치료 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년 5월 24일에는 팔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고양이 가죽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논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³³⁾

『승정원일기』에도 영조의 臂痛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특히 영조 13년 2월 14일의 기사를 보면, 당시 入診 중이었던 의관 姜涓騁이, 영조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松葉 찜질 치료를 시행할 것을 왕에게 직접 권하는 장면이 나온다. 강위빙은 이 치료가 효과적임을 직접 여러 번 목격했다고 아뢰었다. 이에 대해 영조는 ‘松葉은 민간에서 소위 松蒸이라 하는 것이니...’³⁴⁾라고 언급한다. 松葉을 이용한 찜질법을 의관이 왕에게 직접 권유했다는 점, 민간에서도 이 치료법이 활용되고 있고 그 치료법의 명칭이 松蒸이라는 사실을 왕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 등이 눈에 띄인다.

한편 『승정원일기』의 영조 42년 4월 24일 기사를 보면, 입진 중에 영조가 ‘뜨겁게 찜 솔잎을 깔고 눕는 것, 이것이 찜질 처방 중에 최고로 효과적인 것 같다’³⁵⁾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앞의 기사보다 약 30년이 지난 뒤의 기록인데, 영조는 이 기간 동안 여러 종류의 찜질법을 직접 시험해 보았던 것 같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松葉 찜질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松葉 찜질법을 활용할 때에 한 가지 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변용하여 시행했던 것 같은데, 영조는 그 중에서도 뜨겁게 찜 松葉을 자리에 깔고 눕는 방법을 가장 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松葉 찜질법은 일반 백성들은 물론 의관과 왕에게까지 두루 인정받고 애용되는 치료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袖珍經驗神方』의 松葉 蒸法

33)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의 영조실록 참조.

34) ‘涓騁曰, 松葉去風治濕痰, 蒸熱裹熨, 累見有效矣. 上曰, 松葉則俗所謂松蒸...’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에서 발췌.

35) ‘上曰, 松熨既好云, 爛蒸松葉藉之, 此似是熨方中最勝者矣.’ 승정원일기(위 사이트)에서 발췌.

『수진경험신방』은 1912년에 이인재가 전통의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종합의서이다.³⁶⁾ 그런데 이 책의 卷之下, 男婦通治門 中風 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腰脚風濕作痛,不能履地○松葉,入布袋蒸,乘熱熨之³⁷⁾

이 기록은, 『승정원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조선 후기에 널리 활용되어졌던 松葉 찜질법이 20세기 초의 문헌에도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제중입효방』으로부터 『구급단방』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문헌을 통해 전해진 내용과, 『승정원일기』로 파악해 볼 수 있는 당시의 정황 및 『수진경험신방』에 남아 있는 기록 등으로 판단해 볼 때, 松葉 찜질법은 그 연원이 매우 오래되었으며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활용된 치료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나무는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다. 이 소나무 잎을 이용한 찜질법은 민간에서 매우 오래 전부터 활용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김영석이 『제중입효방』을 저술하기 이전에도 松葉을 이용한 찜질요법은 이미 존재했을 것이다. 어쩌면 김영석이 참고했던 신라 의서에도 이미 松葉 찜질법이 기록되어 있었을지 모른다. 이러한 흐름 속에 김영석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松葉 찜질법에 鹽을 결합시켜 이를 최초로 기록하여 남겼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애용되었기에 기록될 수 있었으며, 기록되었기에 보존되고 애용될 수 있었던 치료법. 交效散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서적을 관장했던 비서성과 왕실문고 격인 보문각의 관리를 겸임했으며, 외교관으로 중국과 왕래했던 김영석은, 국내외의 문물을 다양하게 접했던 지식인으로서, 의서 편찬에 적합한 조건의 인물이었다. 김영석은 말년의 13년간 風痺를 다스리기 위한 요양생활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제중입효방』의 집필에 동기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남아 있는 『제중입효방』의 내용도 風痺를 다스리기 위한 처방에 관한 것이다. 『제중입효방』이 이 요양 기간 동안 저술되었다면, 저작 시기는 1154년부터 1166년 사이가 된다.

『제중입효방』이 인용된 새로운 문헌을 탐색하는 중, 조선 후기의 필사본인 『구급단방』에도 교효산 처방이 수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제중입효방』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헌이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의림촬요』, 『구급단방』의 총 다섯 종류로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의림촬요』 외에 ‘제중방’이라는 출전명이 기재된 한국 의서로서 『이석간경험방』, 『의방합편』, 『인제지』 등을 검토하였는데, 『의림촬요』의 ‘제중방’만이 『제중입효방』을 지칭했고 나머지 의서에서의 ‘제중방’은 모두 중국의 『간요제중방』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중입효방』 처방을 인용한 문헌들을 비교 고찰한 결과,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알 수 있었다. 그 첫번째 부류는 『향약집성방』, 『의림촬요』, 『구급단방』이고, 두번째 부류는 『향약구급방』, 『의방유취』였다. 특히, 『향약집성방』, 『의림촬요』, 『구급단방』은 그 인용의 계통성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것으로서, 『의림촬요』가 『제중입효방』의 내용을 조선 중기 이후로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 의서에서는 교효산이라는 명칭 및 유사한 처방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효산이 『천금방』에서 그 발상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던 김두종의 주장은 부당한 평가였다고 생각된다. 松葉과 鹽을 내복용이 아닌 찜질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은 『제중입효방』이 최초였다. 따라서

36)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 『수진경험신방』 해제정보 참조.

37) 이인재, 『수진경험신방』 卷之下, 5쪽.

교효산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존되어 내려온 고유 처방들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중 영조 대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松葉 찜질법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민간에서는 물론, 의관과 왕에게도 애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진경험신방』의 기록을 통하여 松葉 찜질법이 일제시대 초기의 문헌에도 채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중입효방』은 이러한 松葉 찜질법의 오랜 연원과, 거기에 鹽을 배합한 독창성에 대한 기록을 전해 주고 있다. 천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보존되어 온 한국의 고유 의학지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이의 새로운 활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17.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18. 『의림촬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 자원 웹서비스(<http://jisik.kiom.re.kr>)
19. 『의방유취』,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 자원 웹서비스(<http://jisik.kiom.re.kr>)
20. 『의방합편』,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 자원 웹서비스(<http://jisik.kiom.re.kr>)
21. 『이석간경험방』,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http://jisik.kiom.re.kr>)
22. 『인제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http://jisik.kiom.re.kr>)
23.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24. 『향약집성방』,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http://jisik.kiom.re.kr>)

IV. 참고문헌

1. 강극명 등, 『교정 방제대사전』, 의성당, 1991
2.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3. 김신근, 『한국의약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4. 김용선, 『고려묘지명집성』, 누리미디어, 2003, KRPIA(<http://www.krpia.co.kr>)
5. 김홍균, 『99 한국의학사 강의록』, 영인본, 1999
6. 맹용재 등, 『한의학통사』, 대성의학사, 2006
7. 배현숙, 『고려시대 비서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980 (제39권)
8. 삼목영, 『조선의서지』, 학술도서간행회, 1956
9. 한국한의학연구소, 『역대 한의학 문헌의 고증 I』, 한국한의학연구소, 1996
10. 신영일,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 경희대 한의학과 박사논문, 1994
11. 안상우, 『고려 의서 비예백요방의 고증』, 『서지학 연구』, 2001 (제22집)
12. 안상우, 『고의서산책(134) 제중입효방』, 『민족의학신문』, 2002 (제392호)
13. 이인재, 『수진경험신방』, 계축문화사, 1990
14. 임지혜, 『고려시대 왕실문고에 관한 고찰』,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 석사논문, 2002
15. 『고려사』, KRPIA(<http://www.krpia.co.kr>)
16. 『구급단방』,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 자원 웹서비스(<http://jisik.kiom.re.kr>)